

예능 '우먼 파워' 거세진다

안유진·이영지 등 '지락실' 시즌2 촬영 한창
각종 사진 푸는 '여고추리반' 시즌3 본격 준비
헤리 등 시골 생활 '헤미리에채파' 3월 첫방송

최근 드라마에 거세게 불고 있는 '여풍'(女風)이 예능으로도 옮겨가고 있다. 나영석, 정종연, 이태경 등 '스타 PD'들이 저마다 여성 스타들로 출연진을 채운 tvN '뽕뽕 지구오락실', 티빙 '여고추리반', ENA '헤미리에채파'를 줄줄이 내놓는다. 관찰 포맷 등 여러 제약으로 출연을 기피해온 여성 출연자들은 물론 이들만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내놓기 꺼려하던 과거 방송가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은지·최예나 등 '스타 탄생'

개그우먼 이은지, 오마이걸 미미, 가수 이영지, 아이브 안유진은 지난달 말 '뽕뽕 지구오락실'의 시즌2를 촬영하기 위해 핀란드로 떠났다. 이들은 지난해 6월 방송한 시즌1에서 태국 곳곳에서 다양한 게임을 펼치면서 단번에 '예능 셋별'로 떠올랐다. 시즌1의 인기로 힘입어 시즌제로 확장한 프로그램은 상반기 방송을 목표로 제작 중이다. 연출을 맡은 나영석 PD 등 제작진은 앞으로도 다양한 나라를 배경으로 해 시리즈를 이어갈 방침이다.

'여고추리반'도 연말 시즌3을 공개하기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콘텐츠는 방송인 박지윤, 개그우먼 장도연, 방송인 재재, 가수 비비와 최예나가 고등학교에서 각종 사건을 푸는 추리 예능으로 시즌1,2까지 선보이며 티빙 대표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



가수 이영지, 오마이걸 미미, 개그우먼 이은지, 아이브 안유진(왼쪽부터)이 출연하는 tvN 예능프로그램 '뽕뽕 지구오락실'이 핀란드를 배경으로 한 시즌2를 상반기 중 방송한다.

3월 방송하는 '헤미리에채파'는 배우 겸 가수 헤리, (여자)아이들 미연, 댄서 리정, 가수 최예나, 르세라핌 김채원, 방송인 파트리샤 음비의 시골 생활을 담은 리얼리티 포맷이다. 이들이 다양한 게임을 통해 얻은 자금으로 음식을 해먹고 집을 꾸미는 과정을 담는다.

●여성 시청자 공감 기반 '화제성'↑

관련 흐름에는 젠더 감수성 변화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하재근 대중문화평론가는 8일 "방송가 안팎에서 여성 캐릭터의 역할이 더욱 넓어져야 한다는 시청자의 요구가 높아지는 추세"라며 "여성 출연자들의 솔직한 이야기가 20~30대 여성 시청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면서 화제성과 시청률에 힘을 보태는 데에도 용이하다"고 분석했다. 또 "한동안 남성 출연자들만으로 구성된 예능 포맷이 쏟아진 상황에서 신선한 시도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연출자들도 여성 출연자들이 선보이는 다양한 '케미스트리'를 눈여겨보고 있다. '헤미리에채파'를 만든 이태경 PD는 "여성 출연자끼리 있을 때 생겨나는 독특한 관계성이 특히 매력적"이라고 설명했다. '여고추리반'의 정종연 PD도 '여성 팀워크'에 대해 "OTT 환경에 맞게 여성 시청자를 주요 시청층으로 공략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연예뉴스 HOT 3

이수만, SM 신주·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져분 신청

SM엔터테인먼트(SM)의 설립자인 이수만 대주주가 8일 서울동부지법에 SM을 상대로 신주 및 전환사채발행금지 가져분 신청을 냈다. 전날 긴급 이사회를 열어 카카오에 제삼자 방식으로 약 1119억원 상당의 신주와 1052억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의한 이성수·탁영준 공동대표이사 등 경영진에 대항한 것이다.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유는 "기존 주주가 아닌 제삼자에게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경영사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어야 하고,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한도에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최소로 침해하는 방법을 택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번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결의는 위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결의"라고 주장했다.

신민아·장성규 등 스타들 튀르키예 기부 릴레이



장성규

스타들이 강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와 시리아 돕기에 나섰다. 배우 신민아는 8일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지진 피해 복구에 써달라며 5000만 원을 기부했다. 방송인 장성규도 SNS를 통해 "개인 유튜브 채널 '장성규니버스' 수익금 2300만 원을 대한적십자회를 통해 기부했다"고 밝혔다. 양동근은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을 방문해 무라트 타메르 대사를 만나 직접 1000만 원을 전달했다. 래퍼 단딘과 그룹 워너 김진우도 각각 1000만원 씩 기탁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튀르키예 남동부와 시리아를 덮친 강진으로 사망자 수가 7800명을 넘어섰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번 지진에 따른 사망자가 2만 명을 넘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프랑스 재개봉 앞둔 '괴물' 마스터클래스 개최



봉준호 감독

봉준호 감독이 2006년 영화 '괴물'로 프랑스 관객을 만난다. 봉 감독은 3월 8일 프랑스에서 4K화질로 리마스터링한 '괴물'의 재개봉을 앞두고 26일과 27일 파리과 리옹에서 각각 마스터클래스를 개최한다. 26일 파리 르그랑렉스 영화관에서 '괴물'과 '기생충' 연속 상영 사이 티에리 프레모 프랑스 칸 국제영화제 집행위 원장이 사회를 맡은 마스터 클래스 무대에 오른다. 다음 날인 리옹 뤼미에르 연구소에서 '괴물' 특별 상영을 앞두고 열리는 마스터 클래스에 참여한다. 뤼미에르 연구소는 봉 감독의 '괴물' 재개봉을 계기로 9일부터 3월 22일까지 봉 감독의 회고전을 개최한다.

편집 | 한민규 기자 stopspe@donga.com

뽕한 스토리는 가라

영화 슬램덩크·상견니 흥행 돌풍 비결
원작과 차별화된 이야기로 매력 극대화



원작의 매력을 살리면서도 영화만의 새로운 재미를 가미한 '더 퍼스트 슬램덩크'와 '상견니'(왼쪽부터)가 흥행 날고 있다. 사진은 각 영화의 한 장면. 사진제공 | NEW·오드

치관은 굉장히 심플하다. 하지만 영화에는 '가치관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어도 나름의 답이 있다면 괜찮

다'는 지금의 생각을 녹이고 싶었다"고 밝혔다.

과거를 오가며 벌어지는 연인의 애절한 로맨스 '상견니'는 1월 25일 개봉해 7일까지 누적 25만5614명을 모았다. 일주일 만에 17만 명을 모은 2008년 '말할 수 없는 비밀'을 꺾고 역대 대만영화 국내 흥행 3위에 올랐다.

영화는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전 세계에서 10억 건이 넘는 시청진수를 기록하며 인기를 끈 2019년 대만드라마를 기반으로 한다. 연출가와 각본가 등 원작 스태프들이 다시 모였으며 원작 배우들도 그대로 본래의 배역은 연기해 팬들을 극장으로 불러들였다. 반복되는 타임슬립을 통해 로맨스와 미스터리로 오고가는 기본 설정도 유지했다.

하지만 학창시절이 중심이 되는 원작과 달리 성인이 된 주인공들로 드라마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펼친다. 일부 캐릭터의 서사도 원작과는 차이를 뒀다.

국내 개봉에 앞서 지난달 26일 한국을 찾은 주연배우인 쉬광환(허광환)과 커자옌(가가옌) 역시 드라마와 영화의 차이에 대해 강조하며 "독립적인 에피소드로 드라마를 보지 않은 관객도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



전립선 건강은 기본!
비오틴까지
풍성하게!
전립소 쏘팔메토 블랙



전립소 전속모델 이정용

저온 초임계 추출 프리미엄 쏘팔메토

·미국 플로리다산 고품질 쏘팔메토 100% 사용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저온 초임계 추출방식으로
잔류물질 걱정 없이 안심

비오틴, 1일 영양성분 기준치 10배의 풍성한 고품향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프랑스 DSM사의 프리미엄 비오틴 300ug 함유
·비오틴 1일 섭취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1,000%의 풍성한 고품향

남자를 위한 7중 기능성 원료

- ① 전립선 건강을 위한 쏘팔메토 열매추출물
- ②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한 비오틴
- ③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를 위한 비타민 B1
- ④ 체내 에너지 생성을 위한 비타민 B2
- ⑤ 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한 비타민 B6
- ⑥ 정상적인 염산 대사에 필요한 비타민 B12
- ⑦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한 아연



4개월분 구매 시
2개월분 추가 증정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원 : (주)노바팩스 2공장 ·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원 : (주)이비엘케이(주)

CJ웰케어
건강카운셀러
무료상담 및 주문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080-722-9988